

3월 작은도서관 무슨책읽어?

강원지부

	소속 / 이름	책제목 / 저자 / 출판사	책속 한 문장
1	스무숲도서관	나에게 nada움을 주기로 했다/고정욱/리듬문고	책을 읽으면 그 사람의 실력과 능력과 인성, 모든 것이 몰라보게 성장한다. (p.135)
2	철암도서관	나를 닮지 않은 자화상/장호/창비	"너, 일어나, 그래. 서는 거야. 누워 있거나 고개 숙이고만 있으면 안 돼. 햇살되어 빛나 (p.148)"
3	뒤뚜르어린이도서관	피어나다/장현정 그림책/길벗어린이	나도 피어납니다
4	꾸러기어린이도서관	소년과 두더지와 여우와 말/찰리 맥커시 글그림, 이진경 옮김/상상의힘, 2020.	우리가 어떤 일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자유야.
5	꿈마루 도서관	우리 동네에는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박소희/책숲놀이터, 2019.11.20	좋은 것은 얼마든지 따라 할 수 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역의 특성을 살려 나름의 개성을 갖추면 얼마나 좋을까 (중략) 오히려 외국 도서관을 닮았으면 싶은 점은 형식적인 모습보다 도서관의 철학이나 서비스이다. (p.200)
6	앞짱어린이도서관	아침의 피아노/김진영/한겨레 출판사	삶은 향연이다. 너는 초대받은 손님이다. 귀한 손님답게 우아하게 살아가라 (p.119)
7	개인회원/김성란	배움의 발견/타라 웨스트오버/열린책들	누가 역사를 쓰는가? 나는 바로 나라고 생각했다.

3월 작은도서관 무슨책읽어?

경기남부지부

소속 / 이름

책제목 / 저자 / 출판사

책속 한 문장

1	꿈&휴작은도서관/최은경	비에도 지지 않고/미야자와 겐지/언제나북스	키워드_함께 '비에도 바람에도 눈보라에도 지지않고' 라는 구절을 읽으며 욕심없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분명 행복 할 수 있는데...
2	애기똥풀도서관/한은희	파란하늘 빨간지구/조천호/동아시아	키워드_함께 "세계는 과거부터 인류가 선택한 것들이 축적되어 만들어졌습니다."
3	산들마을푸른숲작은도서관	힐다_트를 가족과 마주치다/루크 피어슨/찰리북	키워드_연대 "정말 고마워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어"
4	다문화그림책도서관 토닥토닥/ 김동현	평화로 가는 사진여행/임종진/오마이북	우리나라 남쪽 어느 여행지에 온 것처럼 편안하게 느껴지는 거야. 처음 가본 곳이지만 아주 익숙한 풍경을 마주한 그런 느낌? '공기가 이렇게 똑같다니'

3월 작은도서관 무슨책읽어?

경기북부지부

소속 / 이름	책제목 / 저자 / 출판사	책속 한 문장
1 예다움작은도서관/백정희	한 그릇도 배달됩니다./박채란/열린어린이	다시 한번 괜찮아. 하루에 수천번 마음이 바뀌어도.-수천번 아니 수만번 중에서
2 자유청소년도서관/김경윤	그대가 있어 내가 있다/사티쉬 쿠마르/달팽이	영혼은 서로를 섬기게 한다.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는다. (p.26)
3 햇빛21작은도서관/윤영연	어서와, 알마/모니카 로드리게스 글/풀빛미디어	어둠을 깨는 한 줄기 빛을 꿈꾸면서 여러 시간을 그렇게 바다 위에서 표류했다
4 그루터기 작은도서관/이병무	잠자는 숲속의 아이 /박혜선 글, 이소영 그림/해와나무	잠자는 숲속에 깨어 있는 공주님. 오늘 하루도 잘 지냈어요?" 나는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할 것이다. "네. 내일도 여전히 잘 지낼게요"
5 평화를 품은집 평화도서관/황수경	우리집은 / 조원희/ 이야기꽃출판사	우리집 복도에는 텃밭이 있어 옆집할머니는 화분이 엄청 많아 나는 상추랑 깻잎을 키워
6 마상공원작은도서관/김은미	집을 위한 인문학/노은주, 임형남 지음/ 인물과 사상사	집은 무릎나온 트레이닝복처럼 험령하고 편안해야 한다.
7 책놀이터작은도서관/박미숙	가족이 있습니다/ 김유 글, 조원희 그림 / 뜨인돌	저는 가족이 있습니다.
8 호수공원작은도서관/신현미	우리가 잠든 사이에/믹 잭슨 글, 존 브로들리 그림 / 봄별	아늑한 이불 속으로 쑥 들어가는 건 참 좋아. 그런데 우리가 푹 잠들어 꿈속을 헤매고 있을 때에도 누군가는 말뚱말뚱 깨어서...
9 모당공원작은도서관/김정희	일곱 해의 마지막 /김연수/문학동네	기행을 매혹시킨 불행이란 흥성하고 눈부셨던 시절, 그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의 결과물이었다. 다시 시를 써야겠다고 마음먹은 것도 그 때문이었다. 사랑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불행해지는 것쯤이야 두렵지 않아서.

3월 작은도서관 무슨책읽어?

광주지부

도서관명 / 이름		책제목 / 저자 / 출판사	책속 한 문장
1	책돌이도서관/김세원	사자가 작아졌어!/ 정성훈/비룡소	책속 한 문장: 가젤은 처음 사자를 만났을 때보다도 더 슬펐어. 가슴이 꼭 막혀서 숨쉬기도 힘들었어. 한줄 감상: 작아진 사자의 행동에 깊은 위로를 받았다. 그리고 떠올려보았다. 나는 이런 행동을 한적이 있었던가...
2	책문화공간 봄/위명화	코로나 사피엔스/ 최재천, 장하준/ 인플루엔셜	세계를 힘들게 했던, 현재도 우리 삶을 뒤흔드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일회용품 쓰레기가 이렇게 많아도 될까? 냉난방기가 이렇게 많아도 될까?"라고 우려했던것들이 한꺼번에 다가온 위협인 것 같습니다. 준비 없이 생각 없이 환경을 간과했던 것들이 반성 되는 시간입니다.
3	아이숲어린이도서관/문상희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유발 하라리/김영사	세계가 발전할수록 우리 자신에게서 멀어진다. 하지만 노력을 기울인다면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알 수 있다.

3월 작은도서관 무슨책읽어?

대구지부

소속 / 이름

책제목 / 저자 / 출판사

책속 한 문장

1	개인회원/김경희	하루거리 / 김휘훈/그림책공작소	오늘을 사는 아이들, 그리고 우리가 모두 안녕하기를 바랍니다 -작가의 말 중에서
2	책마실도서관	그냥, 사람 / 홍은전 / 봄날의책	모두가 함께 기억하는 공통의 사건, 사고도 많지만, 평생 존재하는지조차 몰랐던 사람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입니다.
3	개인회원/손수정	아몬드/손원평/창비	<p>인간들이 동물과 다른점을 꼽는다면 공감능력일것이다 다양한감정 상대가 주고자하는 감정과 그것에 적절한 대응이 사회생활에 필요요건이니까</p> <p>그것을 할 수 없도록 태어난 선운재. 하지만, 엄마와 할머니의 사랑을 충분히 받으며자랐다 그에비해 감정이 풍부한 곤은 불행한 사건으로 사랑없는 유년시절을 보내고 사랑하는것에 대한 미숙한 아버지로 인해 어긋난 삶을 살아가려한다</p> <p>작가는 자신의 아이가 태어나 혹은 환경에 따라 인간이 어떻게 달라질 수있는 지에 대해 고민했다고 한다 아이가 달라져도 난 여전히 사랑하고 그아이의 편이 될 수있을까에 대한 고민. 그로부터 시작한 글이라고 한다.</p> <p>이책이 계속 베스트셀러이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회자되는건 감정.공감. 인간만의 특징이라는것에 대한 이야기여서가 아닐까</p> <p>공감능력은 타고나기도 하지만 길러지기도 한다 옳은 판단은 더욱더 그러하다고 생각된다</p>
4	반야월행복한어린이도서관 아띠	우리가 잠든 사이에 /믹 잭슨/봄별	'우리가 잠든 사이에' 나를 위해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자연 속 동물들을 통해 우리 모두는 연결되어 있으며 나의 안녕은 우리의 정상적인 일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평화와 연대의 그림책
5	어린이청소년도서관 더 붙어숲	위를 봐요/정진호 지음/ 은나팔	"내가 여기에 있어요, 아무라도 좋으니.....위를 봐요!" 바쁘게 앞만 보고 가는 우리들이 한 번씩 보아야 할 여기저기, 옆에도 위에도 뒤에도 모든 곳에 또 다른 우리가 있다.

	소속 / 이름	책제목 / 저자 / 출판사	책속 한 문장
6	꿈꾸는마을도서관 도토리	<시간과 물에 대하여>안드리 스나이어 마그나손/북하우스	아이슬란드의 빙산이 녹아내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살아온 작가가 느끼는 시간과 물에 대한 이야기가 기후위기의 절박함을 시간의 연속성 속에서 생생하게 느껴지게 합니다. 영원할 줄 알았던 것이 영원하지 않게 된 물, 그 속에서 어쩌면 인류와 지구의 시간도 사라지게 될지도...공감, 연대, 함께! 가장 필요한 지금인 것 같아요. p.201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단어와 개념이 우리 시대를 묘사하는데 쓰일지, 우리는 알 수 없다.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 당장 무엇을 하느냐에 달렸다"
7	그나라어린이도서관	너의 목소리를 들려줘! /피터 레이놀즈 /책과 콩나무	"너의 목소리는 용기를 주고, 상처를 아물게 하고,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 또 세상을 바꿀 수도 있지. 세상에 너의 목소리를 들려줄래?"
8	마을도서관 햇빛따라	모모 /조나단 가르니에 글, 로니 호턴 그림/북극곰	모모는 할머니와 함께 살면서 바다에 나간 아빠를 기다리며 지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마을 사람들이 모여 모모의 거취를 논의합니다. 할머니를 잃은 모모를 걱정해 주고 함께 있어준 이웃들이 있어 슬픔을 이겨내고 아빠를 다시 만날 수 있었답니다. 처음 표지를 봤을 때 아이가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 궁금했어요.

3월 작은도서관 무슨책읽어?

사무국		
소속 / 이름	책제목 / 저자 / 출판사	책속 한 문장
1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 협회/이은주 나는 한때/지우/반달	한 때 나는 여러 가지 이름이었어!
2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 협회/김현실 나는 나무처럼 살고 싶다/우종영/메이븐	어떨 때는 두 나무가 동시에 병들어 죽기도 한다. 저희끼리 서로 살겠다고 치고받고 싸우다가 결국엔 두 놈 다 병충해를 이겨 내지 못하고 시들어 버린다. 그런데 나무란 놈은 참 현명해서 그렇게 되기 전에 대부분 서로 의기투합한다. 한쪽이 병들어 죽기 전에 서로 붙어 한 몸이 되면 혼자였을 때보다 훨씬 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난다. 전화위복이랄까. 몸집이 더 커지다 보니 뺏어 갈 수 있는 가지수도 늘어나고, 그만큼 병충해 같은 외부의 재해로부터 강해진다. - 사랑한다면 '연리지'처럼 중에서 (p.186)
3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 협회/김혜령 위대한 개츠비/스콧 피츠제럴드/더스토리	사람의 행동이란 단단한 바위에 기초할 수도, 축축한 습지에 근거를 둘수도 있겠지만 일정 단계가 지나고 나면 처음의 토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4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 협회/백영숙 두 늙은 여자/벨마 윌리스/이봄	"그래, 사람들은 우리에게 죽음을 선고했어! 그들은 우리가 너무 늙어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고 여기지. 우리 역시 지난날 열심히 일했고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을 그들은 잊어버렸어! 그래서 지금 내가 이런 말을 하는거야, 친구야. 어차피 죽을 거라면 뭔가 해보고 죽자고, 가만히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게 아니라 말이야." (p.29)
5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 협회/박현진 말려 드립니다!/남섬/그림책향	말려 드립니다! 비에 젖은 우산도, 동생에게 물려줄 인형들도, 냄새 나는 이불도, 할머니가 정성껏 손질한 우거지도, 말려 드립니다! 살짝 젖은 네 발바닥도, 목욕하느라 힘들었던 멍이도, 머구름을 통과하느라 축 늘어진 깃털도, 모두모두 말려 드립니다!
6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 협회/채은아 네, 저 생리하는데요?/오윤주/다산책방	내 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긍정한다는 것, 내 몸을 다른 누군가가 사랑해주기만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 내 몸을 그 누구보다 내가 가장 사랑한다는 것, 내가 내 몸의 주체가 된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여성이 꾀할 수 있는 최고의 혁명이다. 내 몸 긍정 중에서 (p.263)
7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 협회/정에서 사람, 장소, 현대/김현경/문학과 지성사	사회적 성원권을 부여하는 데 '동화'나 '적응'을 조건으로 내걸어서는 안된다. (p.65)

3월 작은도서관 무슨책읽어?

서울지부

소속 / 이름

책제목 / 저자 / 출판사

책속 한 문장

1	흥부네그림책도서관 /김진희	그냥, 사람/홍은전/봄날의 책	츄츄하게 과속하는 사회에서 츄츄하게 고통이 전가된다. (p.44)
2	작은도서관 함께놀자/박계순	우린 다르게 살기로 했다/조현 지음/휴	마을 공동체살이의 이점은 개인뿐만 아니라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데 기여한다는 것이다. '고래가 뱃속에 8킬로그램의 페비닐 봉지를 담고 죽어 있다' 는 뉴스에도 대부분의 사람이 '가없다' 는 한마디로 스쳐보내지만, 공동체 사람들은 그날부터 비닐이나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일회용품을 안 쓰기를 실천한다. (p.15)
3	성대골어린이도서관 /정설경 외	두번째 지구는 없다/타일러 라쉬	우리는 점점 큰 상자를 잊어가고 있다. 우리가 갇힌 인공이라는 작은 상자 바깥을 전혀 상상하려 하지도 않는다. 수도를 열면 물이 쏟아지지만 그 물이 어디에서 왔는지 궁금해 하지 않고, 우리가 숨쉬는 공기가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 궁금해하지 않는다. ... 우리가 숨쉬는 산소의 절반 이상은 바다에서 온다. 이걸 알고 있으면 바다가 더러워져도 상관없다는 식의 생각은 할 수 없다... (서문)
4	도담도담 작은도서관 /권영미	Auggie&me/R.J Palacio/Alfred A.Knopf New York	Friends definitely aren't about the medals. 교장선생님 샬롯을 불러 졸업식에서 Beecher medal을 오기에게 줄것이라고 말하니 이기적이었다기 보다는 개인주의적이었던 샬롯이 두명에게 줄수는 없느냐고 되묻는다. 교장선생님은 다른 한명이 샬롯일거라 예상했으나 샬롯은 썸머를 추천한다. 교장선생님은 썸머가 오기의 좋은 친구였다는 이유로 메달을 받고싶어할까? 하고 물으니 샬롯이 한 말이다. 전편 wonder에서 궁금했던 줄리안, 크리스, 샬롯이 그 한해동안 우정에 대해 느끼고 성장하는 과정이 그려진 속편. 감동입니다.
5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 /양정아	시로 : 어설픈 위로받기 /하상욱/위즈덤하우스	"괜찮아 힘내"보다 "괜찮아 울어"가 더 힘이 될 때가 많다는 걸 갈수록 느낀다. 니가 뭘 하든 난 상관없어. 뭘 하든 널 응원할 거니까.
6	성북작은도서관네트워크 (소리마을작은도서관) /김동미	잡초의 전략/이나가키 히데히로/도솔오두막	잡초의 생존전략이 있으니 이는 다른 생명과의 조화로운 삶이다
7	와글와글작은도서관 /이주연	유원/백은유/ 창비	높은 곳에 서려면 언제나 용기가 필요했다. 나는 옥상에서 아래를 볼 때 느끼는 감정을 단순하게 불안함과 공포라고 여겼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식은땀이 나는 건 잠재 의식 속에 사고에 대한 감각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 아차, 하는 순간 나는 이미 날고 있었다. (...) 언니를 생각하니 언니가 내 위에 앉아 있었다. "언니, 하나도 안 무섭지?", "응" 나는 처음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언니의 용기를 닮고 싶었다. 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해 준 언니를.

	소속 / 이름	책제목 / 저자 / 출판사	책속 한 문장
8	책읽는엄마 책읽는아이 / 함정희	자유로서의 발전 /아마티아 센/갈라파고스	개인의 자유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가치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시장의 자유를 강하게 옹호한다. 시장의 자유가 단지 효율적 자원배분이나 경제성장을 가져다준다는 도구적 역할 때문에 필요한 것이 아니다. 자유 그 자체로서 귀중한 것임을 역설하고 있다. 단 이 자유는 단순히 행동이 구속받지 않는 무제약과는 달리 실제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행할 수 있는 실질적 자유를 의미하며, 따라서 사회적 존재인 인간의 자유란 사회현실의 토대위에서만 의미를 가진다. 센의 자유는 형식적 자유가 아닌 실질적 자유다. 그는 모든 이가 가급적 평등하게 자유를 누리는 사회정의를 동시에 추구하기 때문에 나는 센의 자유주의를 진보적 자유주의라고 규정한다.
9	성산글마루작은도서관 /이영옥	그레구아르와 책방 할아버지/ 마르크 로제/ 문학동네	마르크 로제는 이렇게 정의 한다 "책은 혼자서 읽는 것만이 아니라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읽어주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책 읽어주는 일'은 사람과 사람을 서로 이어주는 일이다." 그리고 "문학은 인간적 접촉을 위한 하나의 구실이다. 북카페나 서점, 도서관, 요양원 같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접촉"이라고 그는 말한다. 그리고 소설 속에서 피키에 씨의 입을 빌려 다시 한번 책 읽기를 통한 접촉과 연결의 엄청난 효용성을 강조한다. (p.311)
10	꿈틀어린이도서관 /이소영	고추장 작은 단지를 보내니 /연암 박지원/ 돌베개	저녁에 가면 밥 먹을 곳이 없으니 일단 여기 그대로 앉아 있다가 내일 새벽 경주와 함께 가겠네. 아침밥은 줄 수 있나? 이 때문에 편지하네. 이만 줄이네. 읽어 봐 주게. (p.46)
11	생글작은도서관/주영자	미아로_산다는 것/박노자/한겨레출판	우리에게는 귀가할 수 있는 '집'이 필요하다. 공감과 연대, 협력을 통해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안전한 집을 짓자.
12	작은도서관 함께크는우리/장인혜	둥그렁 땡 둥그렁 땡 김중도/ 창비	생김새대로 잘하는 대로 모두 모두 돌려라 둥그렁 땡땡 돌려라
13	초록나라도서관/백은숙	네가 있어 난 행복해! /로렌츠 파울리/비룡소	친구야 받아. 선물이야. 내 행운의 조약돌을 줄게.나는 선물을 하면 기분이 좋거든. 그러면 너도 좋고 나도 좋잖아
14	용강동작은도서관/손선미	아홉명의 완벽한 타인들/ 리안 모리아티/마시멜로	모두 와인 잔을 높이 들어 "조이와 잭을 위하여!"라고 소리쳤다. 나폴레옹은 케이크에 꽃힌 초에 불을 붙였고, 여덟 손님은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고, 조이는 촛불을 불어 꺾지만 그 누구도 "소원을 빌어요"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식당에 모여 있는 모든 사람의 소원은 같았으니까.

3월 작은도서관 무슨책읽어?

울산지부

소속 / 이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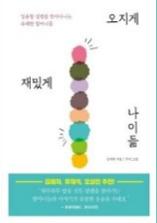
책제목 / 저자 / 출판사

책속 한 문장

1	더불어숲작은도서관 이귀연	경쟁에 반대한다/알피 콘/민음사	경쟁은 상대에게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줘도 된다는 신뢰감을 무너뜨린다. 경쟁적인 문화는 서로에 대한 시야를 아주 좁게 만든다. (p.228)
2	더불어숲작은도서관 노미정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박완서/웅진지식하우스	책을 읽는 재미는 어쩌면 책 속에 있지 않고 책 밖에 있었다. 책을 읽다가 문득 창밖의 하늘이나 녹음을 보면 줄창 봐 온 범상한 그것들하곤 전혀 다르게 보였다. 나는 사물의 그러한 낯섶에 황홀한 희열을 느꼈다. (p.158)
3	더불어숲작은도서관 최미아	엄마의 마지막 말들/박희병/창비	밥은 생명의 근원이다. 밥을 먹지 않으면 생명이 끊어진다. 엄마의 물음은 곧 나의 생명과 안위에 대한 걱정이다. 물질로 표상되는 이 '비물질'은 대체 무엇인가? 아둔한 나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한참이 지나서야 깨달을 수 있었다. (p.102)
4	문수산더샵작은도서관 문신임	2030 축의 전환/마우로 기엔/리더스북	육지에서 멀어질 용기가 없다면 새로운 수평선을 향해 나아갈 수 없다.
5	문수산더샵작은도서관 강인정	메타버스/김상균/플랜비디자인	인간에게 메타버스는 거대한 모방의 공간이다. 메타버스는 결국 모방을 통한 공간이다.
6	양정작은도서관 달팽이 하현숙	열하일기/박지원/돌베개	수레는 왜 못다니는가, 한마디로 선비와 벼슬아치들의 죄이다
7	아너스빌작은도서관 이현숙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올리버 색스/알마	지적장애인에 대해서 항상 느껴온 따스한 감정은 마음의 질과 관계가 있다. (p.289)
8	해보리작은도서관 조현희	두번째 지구는 없다./타일러 아쉬/RH코리아	기후위기로 병하와 영구동토층이 녹으면서 수천 수백년 전 박테리아와 바이러스가 밖으로 나오며 또 다른 전염병을 불러올 수 있다.

3월 작은도서관 무슨책읽어?

인천지부

소속 / 이름	책 사진	책제목 / 저자 / 출판사	책속 한 문장
1 청개구리어린이도서관 / 유영란		한배를 탄 지구인을 위한 가이드/ 크리스니어나나 피게레스, 톰 리빗카넥/ 김영사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후손들은 그 무참한 결과를 무력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후손들에게 막중한 도덕적 책임을 지고 있다. 지금 우리가 힘든 선택을 내리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와 후손들에게서 그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미래를 빼앗게 된다.
2 와글와글작은도서관		오지게 재밌게 나이듦/김재환 글 주리 그림/ 북하우스	45년 전 아들이 학교 갔다와서 공부하다 물었다. "엄마, 이 글자 어떻게 읽어?" 나는 어쩔 줄 몰랐다.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와야지?" 괜히 아들을 나무랐다. 그 다음부터 아들은 물어보지 않았다. 아들이 물었던 글자는 다에 ㄹ과 ㄱ이 달린 '닭'이었다. 글자를 배우니 이제야 생각났다.
3 짱뚱어린이도서관/ 이소윤		사이보그가 된다/ 김초엽, 김원영/ 사계절	사물이나 타자와 경계 없이 결합한 존재로서 장애인/ 정상과 비정상, 인간과 비인간이라는 전통적인 구분/ 장애인 권리운동의 현장은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는 우리 시대의 가장 분명한 장소다./ 어떤 종류의 보이지 않는 장애는 지속적으로 '의심'을 받는다./ 손상 입은 몸과 그에 결합하는 인공 보철의 패션화는 장애인들의 '티 내고 싶지 않은 마음'과 더불어 손상된 몸을 치료와 회복의 대상으로 보고 이를 돕는 장비를 의료기기라는 틀 안에서 규정하려는 근대 의료 체계 아래에서는 추구하기 어려운 목표였다.
4 늘푸른어린이도서관/ 박소희		연년세세/ 황정은/ 창비	잘 모르면서 내가 그 꿈을 꾸었다. 잘 모르면서

5		별것도 아닌데 ___ 예뻐서/ 박조건형, 김비/ 김영사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도 스쳐가고 있을, 별것 아닌 일상 이야기를 특별하게 기록하면서, 우리도 당신처럼 살아 있다. 사랑하며, 살아 있다.
6		함락된 도시의 여자 :1945년 봄의 기록/ 익명의 여성/ 마티	지금의 우리처럼 지나치게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는 무감각이 유용하다.
7		나비가 된 소녀들/ 정란희 글 이영림 그림/ 현암주니어	우리가 저마다 그 소녀들을 기억한다면 잃어버린 소녀들은 사라지지 않고, 우리 곁에 머물 것이다. 그리고 언젠간 눈물과 상처를 다 떨친 모습으로 세상에 우뚝 설 것이다.
8		인천테마여행/한국여행작가 협회/열번째행성	하루하루는 너무나 빠르게 흘러가면서..무엇을 하며 지냈나 허전함이 차곡차곡 쌓여간다.
9		가만히 들어주었어/코리 도 어펠드 글,그림/북뱅크	토끼는 테일러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주었어

3월 작은도서관 무슨책읽어?

충청지부

소속 / 이름

책제목 / 저자 / 출판사

책속 한 문장

1	범지기마을10단지푸른작은도서관/윤나영	아무튼, 술/김흔비/제철소	술을 함께 하면 쉽게 친해지기도, 서로를 위로하기도, 축하하기도 하지만 신기한것은 술을 마시지 않아도 술 이야기만으로도 우리 친구가 되고 일면식 없는 작가가 내가 되게 하는 신기하고 재미있는 책이다.
2	해바라기작은도서관/홍근옥	야옹이야 나야?/허은미글,전진경그림/풀빛	길고양이에서 순덕이라는 이름으로 한 식구가 되기까지의 실화를 바탕으로 쓴 그림책, 작가는 순덕이 덕분에 세상을 향한 문 하나가 열려 안보이고 안들렸던 길고양이들이 보이고 들린다고 한다 서로에 마음을 공감하고 함께 살아가는 모습에 읽는 내내 미소가 지어지며 마음이 따뜻해진다
3	다올책사랑방작은도서관/김은정	모두 함께 살아요/이창형글,곽선영그림/웅진다책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땅, 강,바다, 갯벌, 공기, 숲, 동물, 지하자원, 밤, 빙하, 오존층 등 자연에 대해, 모두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생각해 보는 책입니다
4	솔맹이작은도서관/빈혜영	페스트/알베르카뮈/민음사	전염병 페스트가 작은 도시에 번져 도시는 폐쇄되고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죽어가는 상황이 됩니다. 의사, 공무원, 기자,시민들로 구성된 "시민 보건대"를 구성하여 페스트와 사투를 벌이고 페스트를 이겨내는 이야기가 감동이었습니다.
5	성성푸른도서관/박민주	우리가 잠든 사이에/믹 잭슨 글, 존 브로들리 그림, 김지은 옮김/봄별	우리가 따뜻한 이불 속에서 자는 동안 분주하게 움직이는 이들이 있다. 그들 덕분에 나와 세상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 각자 다른 환경에서 일상을 살아내는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들이 있다. 그들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이며 그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그림책이다.
6	안남배바우작은도서관/오순임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은유/돌베개	우리는 자라면서 언제 어떻게 배우는 걸까 부당한 상황에서는 참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위험하면 · 불안하면 · 힘들면 · 작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 회사는 그만두어도 된다는 것을 세상에 원래 그런 건 없다는 것을 ..
7	도토리숲작은도서관/윤순현	리타의 정원/안리타/디자인 이음	"야야, 정신 차려라, 정신차려라, 하면서 꽃들이 자꾸 나를 깨운다." 봄꽃을 보면 화들짝 정신이 듭니다. (p.66)
8	초롱이네도서관/오혜자	어린여를 위한 무서운 이야기/크리스천 맥케이 하이드커/밝은미래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하는 어린이와 어른들이 제목만 보고 혹 해서 읽게 되는 책입니다. 아무튼 손에 잡으면 끝까지 읽게 됩니다. 초등어린이들이 이렇게 두꺼운 책을 어렵지 않게 읽는 경험을 하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생애 전체를 관통하는 동화를 만난 지가 오래되다 보니 반가운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3월 작은도서관 무슨책읽어?

호남지부

도서관명 / 이름		책제목 / 저자 / 출간일 / 출판사	책속 한 문장
1	여우네도서관/이지은	토우의 집/권여선/자음과 모음	짹. 뽀. 맞는 소리와도 같은 이 말은 원에게 난폭한 사내애의 심장을 축약한 기호였다.
2	여우네도서관/김명희	어린이라는 세계/김소영/창비	다양하다'는 사실상 '무한하다' 가깝다고도 할 수 있다
3	새싹작은도서관/이경화	이해인의 말/이해인/마음산책	같은 말고 아득하여 피리 소린 아직도 끝나지 않았는데 내일을 약속하는 커다란 거울 앞에 꿇어 앉으면 기도는 물 마실수록 가득 찬 기쁨 내 작은 몸이 무거워 울고 싶을 때 별을 보면 내 마음 뜨겁게 가난해지네
4	삼성동어린이도서관/최민정	인문학의 거짓말 두번째 이야기/박홍규/인물과사상사	서양근대 중심 세계관에 대한 반성을 촉구한다. 흔히 말하는 '지리상의 발견'이 아니라, '지리상의 침략'으로 시작되는 서양 중심의 근대는 마침내 2019년 '코로나19'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그것은 1980년대 이후의 소위 글로벌리제이션이 초래한 미증유의 팬데믹이라고 볼 수 있지만, 조금 더 길게 보면 16세기 부터 시작된 제국주의 침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